



포스트혁명의 사상무의식을 넘어: 허자오텐(賀照田)의 『혁명-포스트혁명: 중국 굴기의 역사·사상·문화적 성찰』과의 대화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이 글은 2020년 대만에서 출간된 허자오텐(賀照田)의 저서 『혁명-포스트혁명: 중국 굴기의 역사·사상·문화적 성찰(革命-後革命: 中國屈起的歷史·思想·文化省思)』의 독서를 통해 현대 중국의 위기를 진단하는 중국 지식인과의 심층 대화의 길을 모색한다. 오늘의 중국의 위기를 저자는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무의식’에서 찾는다. ‘사상무의식’이란 혁명 시기 사회의 주체역량이었던 인민군중을 주변화하고 당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국가의 이념과 방향을 재편함으로써 대중들의 자생적 사회참여를 차단한 모종의 의식적·정신적·심리적 기제를 의미한다. 이 기제를 군중노선의 재구성과 신계몽주의 사조의 형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하면서, 저자는 중국 인민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정치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타자/세계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이상주의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제어 허자오텐(賀照田), 포스트혁명, 인민, 개혁, 군중노선, 이상주의, 신계몽주의

I. 중국의 위기와 중국학의 기로

2020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20)가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Global & Trend)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비호감도가 정점을 찍었음을 보여 주었다. 전 세계 주요 14개국의 성인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73%가 중국에 부정적 인상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도 13~24%나 급증한 것이었다. 지도자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78%의 응답자가 시진핑(習近平)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는 물음에는 48%가 중국이라 답하여, 미국에 답한 38%를 능가했다. 이 조사는 오늘날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상, 즉 국력은 강하지만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한 나라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경우는 아마 드물 것이

다. 세계는 부강해진 중국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안하다.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의 연도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비호감도가 이토록 높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상회했다. 물론 당시는 중국이 아직 부상하기 전이고, 또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 만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과 낙관이 가득하던 때였다. 중국은 자본주의 궤도에 연착륙할 것으로 보였고 서구세계의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금 세계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초조는 그런 기대가 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2010년 이래 가공할 만한 속도의 성장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들어선 중국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질서를 수용하기는커녕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 집중, 송환법과 보안법으로 가시화된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이런 불안에 크게 가세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가 중국에 배양될 것이라는 기대는 차치하고, 이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세계의 ‘보편’ 질서인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판 황화론(黃禍論)에 가까운 중국위협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어야 중국이 세계의 정상적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연원은 냉전시대 서구 중국학의 계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중국사가 코헨(Paul Cohen, 1995: 105-130; 2013: 206-222)은 1950~1970년대 꽃피었던 서구의 중국학을 서로 연결된 3개의 패러다임—충격과 반응,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식민지—으로 요약한 바 있다. 1950~1960년대 미국의 중국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레벤슨(J. R. Levenson)을 예로 들면서, 코헨은 그가 비록 ‘잠자는(somnolent) 중국’이라는 19세기의 경멸적 중국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질적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첫째, 중국은 오직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둘째, 오로지 근대 서구만이 그러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그러한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중국문화는 마침내 서구적 형상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이다. 코헨이 볼 때 레벤슨의 사고는 1970년대 중국학에도 상당 부분 계승되었다. 프리드만(Edward Freedman)이나 메츠거(Thomas A. Metzger)처럼 변

화의 동력을 신유학이나 혁명사상 등 중국 내부의 자원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양이 중국의 구원자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서구 중국학의 한계를 야기한 근원적 요인으로 코헨이 지목한 것은 ‘근대성’ 개념이었다.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직선론적 사관에 뿌리를 둔 근대성 개념이 ‘중국의 변화는 서구와 닮은 형상으로 되기 위한 전진’이라는 목적론을 중국학에 주입했다는 것이다. 근대성 패러다임은 근대화란 곧 서구가 걸어온 길이며 중국에는 서구화 외에 다른 진보의 방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이에 대해 코헨(2013: 204)은 원래는 마르크스주의 사회변동 이론에 대항할 목적으로 개발된 근대화론이 역설적으로 ‘공업화된 서양이 세계를 자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낸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답습하게 되었다고 비꼬았다. 냉전시대의 서구, 특히 미국의 중국학자들은 의식했듯 아니든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과 닮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공산당선언』의 예언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이다.

지금 세계의 불안은 중국이 서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틀린 것이었음이 판명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100년 전에 비해 중국은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근대화’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서구화’되었지만, 오늘의 중국은 서구가 기대했던 형상과는 판이하다. 공업화가 가져다주는 사회변동이 중국을 서구와 닮아 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이 깨어졌다. 심지어 이제 중국은 서구의 충격에 반응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서구에 충격을 가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보는 세계의 관점은 여전히 냉전시대 이원론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단지, 예의 ‘근대성’이 ‘민주주의’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코헨의 주장은 요즘 중국 바깥의 중국학계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코헨(2013: 194-222)은 적어도 냉전시대의 중국학은 중국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중국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20세기 초의 사상가 량치차오(梁啟超)의 내면적 모순을 ‘역사와 가치의 분열’로 요약하고 그로부터 중국을 분석하는 틀을 주형했던 레벤슨은 적어도 한 사상가의 고뇌로부터 중국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

였다.¹ 반면 오늘의 중국학은 더 이상 중국의 내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세기 전 서구의 중국학이 중국을 움직이는 내적 동력으로서 (전통사상이든 혁명사상이든) 사상 연구에 주력했다면, 지금 중국학에서 사상 연구는 변방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최근의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부상 이후 전적으로 달라진 중국과 세계의 관계,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궤도에 들어선 후 중국사회가 드러낸 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이론과 개념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 위에서 있다. 1980년대에 코헨(2013: 96-98)이 근대 서양이라는 외부적 준거를 갖다 대기보다 ‘중국 자신에 입각한 접근(China-centered approach)’을 새로운 중국학에 기대했던 것처럼,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위기의식에 직면하여 중국학은 다시 한 번 중국의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을 구원할 것이라는 낡은 관념에 안주하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고뇌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발견하고 그와 소통하는 길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II. 내재화와 상대화의 겹눈

2020년 1월 대만에서 발간된 허자오텐(賀照田, 이하 ‘저자’)의 『혁명-포스트혁명: 중국 굴기에 대한 역사·사상·문화적 성찰(革命-後革命: 中國屈起的歷史·思想·文化省思)』은 오늘날 중국사회가 처한 위기의 근원과 구조를 분석하는 중국 내면의 고투의 자취다.² 이 책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그동안 누차 물어온 것이다.—중국에 지금 같은 권위주의 국가체제가 들어선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국인들을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었는가? 혁명의 위업을 자랑하는 중국에 어찌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는가? 유구한 인문적

¹ 중국의 ‘특수’한 역사가 서구의 ‘보편’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레벤슨은 결국 량치차오의 분열이 파열로 끝나고 말았다고 결론내렸다(Levenson, 1953: 1; 백지운, 2003: 11-12).

² 이 책에 수록된 글 중 일부가 한글본 선집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2018)에 수록되었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한글본이 있는 경우는 한국어판, 그 외에는 대만판 쪽수를 표시했다.

전통을 지닌 중국 지식인들은 왜 이런 현실에 이토록 무기력한가? 중국의 존재는 향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등. ‘혁명-포스트혁명’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열쇠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포스트혁명’이란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그것은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로 시작된 ‘신시기(新時期)’로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혁개방 시기를 지칭한다. 저자가 ‘개혁개방’이나 ‘신시기’ 대신 ‘포스트혁명’이라는 말을 택한 데는 1980년대의 전과 후를 단절로 보는 기존의 시각과 달리 연속과 불연속이 공존하는 모순된 시기로 문제화됐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계급투쟁 우선’ 노선이 종결되고 ‘사회주의 현대화’로의 전환이 선언됨으로써 개혁개방의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치체제나 제도의 측면에서 개혁개방 전과 후를 가르는 경계가 무엇인지는 상당히 모호하다.³

적어도 일상 및 경험 세계의 차원에서 1978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거대한 변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2009년의 어느 문학좌담회는 1949년에서 1978년까지를 (사회주의) ‘전30년’, 1979년에서 2009년까지를 ‘후30년’으로 명명하고, 전자를 ‘다수의 정치’가 확립된 시기로, 후자를 ‘소수의 담론’이 확장된 시기로 구분했다. 이 좌담은 ‘후30년’의 주요한 특징을 ‘전30년’을 이끈 ‘인민군중’의 자리를 개인들의 집합인 ‘대중’이 대체한 것으로 요약하면서, 중국이 직면한 과제는 양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라 말했다(蔡翔 外, 2009).

‘다수’와 ‘소수’, ‘인민군중’과 ‘개인/대중’라는 다소 모호한 대비는 ‘개혁개방’이 명확하게 제도나 체제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일상적·경험적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를 수반했다는 모종의 실감을 드러낸다. ‘개혁개방’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것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는

³ 2021년 11월 18일 도쿄대학에서 개최한 온라인 강연(‘作为深入理解中国方法的“革命-後革命”’)에서 저자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중공 문건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대체로 1986년 말에서 1987년 초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치영(2008; 2013: 210, 272-293)은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은 의제도 아니었으며 당시 지도부 역시 화궈펑(華國鋒)을 비롯한 범시파(凡是派)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모호한 전환점’이라 불렀다. 덩샤오핑 체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복권한 혁명세대가 주도하는 “정치 개혁 없는 경제 개혁”이었다고 일축했다.

사실은 매우 문제적이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단행한 것과 달리, 중국은 문화대혁명 10년의 동란을 겪었음에도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했고 어떤 과격한 형태의 지도부 교체도 겪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혁명시기’와 고별하고 ‘신시기’를 선포함으로써 훗날 불어닥칠 지구적 사회주의의 위기를 피했던 셈이다. ‘개혁’을 단행한 덕분에 중국은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파국적 단절 없이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정작 그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개혁’이 정치제도나 체제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신시기의 ‘개혁’이 제도라는 표피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볼 때, ‘개혁’은 논리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 의식의 영역에서 작용했으며, 나아가 국가의 공식 담론과 뒤얽히면서 결과적으로 자아와 세계를 사고하는 감각을 뒤바꾸어 놓은, 일종의 정신사적 사건이었다. 그 점에서 저자는, 대중은 물론 지식인까지 국가의 ‘개혁’ 드라이브에 몸을 실었던 당시의 “사상 무의식”⁴에 대한 성찰적 분석이야말로 오늘날 중국이 필요로 하는 비판적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한다.

자신이 속해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인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복잡한 결을 내포한다. 저자가 볼 때, 1990년대 뜨거웠던 자유주의-신좌파 논쟁에서 드러난 혁명사관, 그리고 서구 신좌파(New Left)의 중국혁명에 관한 적극적 평가는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현실에 대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인정투쟁일 뿐, 진정으로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 내부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비판적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현실에 내재하되 동시에 그것을 상대화하는 복안(複眼)을 강조한다. 외부의 잣대가 아닌 중국현대사 내부의 시선으로부터 중국 사회주의 실천에 각인된 신념과 고뇌를 포착하되, 그에 대한 당사자의 감각과 이해 방식을 상대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역사이면서 현실인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⁴ 저자의 한국어판 선집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의 원제는 ‘당대 중국의 사상무의식(當代中國的思想無意識)’이다.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賀照田, 2020: 296).

내재화와 상대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 실체에 근접한 분석”(허자오펜, 2018: 218)은 코헨의 ‘중국 자신에 입각한 접근’을 한 겹 더 비튼 것이다. 저자가 시종 경계하는 것은 직관과 맹신, 자아 인정 욕구가 역사 이해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다. 그는 통탄한다, 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1980~1990년대에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 담론은 모두 ‘개혁’이라는 주류 담론으로 흡수되고 말았는가, 왜 지식인들은 독자적인 비판 공간을 창출하지 못했는가, 왜 자유주의 담론은 국가의 ‘안정 발전’론으로, 신좌파의 사회공정론은 삼개대표제(三個代表制)에 나포되어 순식간에 독립성을 상실해 버렸는가(허자오펜, 2018: 221-244). 이러한 통탄으로부터 저자는 서구의 이론으로 중국을 현실을 짜 맞추는 관념주의를 경계하되, 동시에 역사와 현실에 대한 관념과 지식을 만들어 내는 중국 내부의 은닉된 기제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사자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논리와 해석의 빈틈을 발견”(賀照田, 2020: 296)하는 것이다.

내재화와 상대화라는 이중의 과제 설정은 필연적으로 저자를 사상연구로 이끈다. 그에게 사상연구란 이론과 현실 사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름의 층을 찾아 해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감각으로 외래의 이론을 상대화하고 또 당사자의 감각과 사고가 만들어지는 내적 기제에 비판적 거리를 둬으로써 당사자성을 또 한 번 상대화하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 이론과 현실 사이의 포착하기 어려운 감각, 정서, 심리, 의식 등의 주름층을 분석 대상으로 온전히 펼쳐낼 때,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실체에 근접한 분석’이 비로소 가능하다.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가는 도상에 모처럼 열렸던 사상해방의 공간에서 어떻게 당시의 수많은 사유들이 개혁 담론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고 말았는가—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문제의 답을 찾아 저자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름, 즉 ‘사상 무의식’의 층을 파고든다.

신시기 초 당(黨)의 주요 문서들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개혁 노선이 정립되는 맥락을 추적하면서, 저자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문제를 발견’하는 작업에 매진한다. 내재화와 상대화라는 이중의 부정을 통과하여 그가 도달한 결론은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이행하는 1978~1982년 사이 중국공산당의 사

상노선에 어떤 변화가 (의식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중국 사회주의가 노정한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특히 침통해 마지않는 지점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 과정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사상 무의식에 주력하여 당 지도부와 당내 엘리트, 그리고 지식인에게 비판의 칼날을 대는 저자의 접근은 제도를 문제삼는 세간의 ‘체제비판’보다 한층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의 중국에 던지고 있다.

III. 신시기 균중노선 재구성의 사상적 맥락

저자는 1978년 3중전회부터 1982년의 제12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2대’)에 이르는 4년간 중공 지도부의 주안이 제도개혁이 아닌 ‘발란반정(撥亂反正)’으로 집약되는 사상개혁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발란반정’이란 문혁의 ‘어지러움(亂)’을 바로잡기 위해 공화국 역사상 노선과 방향이 가장 ‘올바른(正)’ 시기로 간주되는 1950년대, 정확하게는 1956년 제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8대’)의 시대로 회귀한다는 뜻이다. 신시기가 이런 복고주의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도 의외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1950년대로의 회귀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1950년대와 의미심장한 단절이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단절이 중국혁명사는 물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만큼 중대한 사상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 지도부의 ‘발란반정’ 사고가 본격화된 것은 1981년 6월 27일 중공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역사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의」(이하 「결의」)였지만, 그 초석이 다져진 것은 1979년 9월 29일 예젠잉(葉劍英)이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필한 「중화인민공화국성립 30주년 기념대회에서의 강화」(이하 「예강화」)였다. 이 두 문건은 1950년대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구현되었던 황금시대로 기억하는 풍조가 신시기 초에 만연했음을 잘 보여 준다(賀照田, 2020, 102-103). 문혁과 결별하는 신시기의 사상노선이 ‘창신’이 아닌 ‘복고’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복고주의 자체보다 복고의 이름으로 단절이 발생하는 역설이다. 겉으로는 8대로의 회귀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8대에 대한 왜곡과 단절이 발생하는 지점을 그는 ‘군중노선’⁵을 둘러싼 해석의 변화로부터 찾아낸다. 그가 발견한 것은 8대의 핵심사상이었던 군중노선이 ‘발란반정’의 ‘정(正)’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의도적 왜소화마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賀照田, 2020: 103). 이 단절과 왜곡을 저자는 ‘군중노선의 재구성’이라 칭한다. 『혁명-포스트혁명』의 간판격 글인 「군중노선의 부침—당대 중국대륙의 역사를 이해하는 불가결한 시각」에서 그는 8대의 핵심 내용이었던 ‘군중노선’이 12대를 전후하여 축소, 왜곡되는 지점을 치밀하게 짚어 나간다.

먼저, 저자는 8대에서 덩샤오핑이 당중앙을 대표하여 작성한 「당의 당장 수정에 관한 보고」(이하 「보고」, 1956) 및 중공 8대 당장(黨章, 1956)을 「예강화」(1979) 및 12대 당장(1982)과 대조한다. 이로부터 그는 건국 초에 강조되었던 군중노선의 핵심적 의미가 신시기에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음을 발견한다. 이를테면 「보고」는 군중노선의 3가지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었다. 첫째, “군중노선은 우리 당의 조직공정의 근본문제이다.” 둘째, “인민군중은 반드시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 셋째, “당의 영도공작이 올바른지 여부는 당이 ‘군중에서 나와 군중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예강화」에 오면 이 부분이 “우리는 정확한 사상노선, 정치노선, 조직노선을 견지하여 각 방면에서 일체 군중에 의지하고 일체 군중을 위하는 노선을 견지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대체된다. 군중노선이 사실상 군중 동원의 방법이자 군중의 일상적 편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복지정책의 차원으로 바뀐 것이다. 유사한 변화가 8대와 12대의 당장에서도 드러났다. 전자에서 당의 강령과 정책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준거가 군중노선이었다면 후자에서는 그 준거가 당의 사상노선으로 대체

⁵ ‘군중노선’의 개념과 의미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리리펑(李里峰, 2018: 106-113)의 글을 참고할 만하다. 이 글에 따르면, 5·4시기 이래 중국 지식계에 ‘군중심리’와 ‘군중운동’ 두 계열의 담론이 서로 경쟁했다. 1921년 창당한 중공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군중운동’ 담론을 흡수해 나갔다. 1922년 2차 당대회 조직현장 결의안에서 ‘군중’이 고도로 중시되기 시작했고, 항일전쟁을 거치며 ‘군중노선’ 담론이 체계화된다. 1945년 7차 당대회 당 규약에서 군중노선은 당의 ‘근본적 정치노선’이자 ‘근본적 조직노선’으로서의 지위를 정식으로 확립했다.

된 것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심각하게 본 것은 전자에 명시되었던 바 “인민군중은 반드시 스스로를 해방한다”는 문장이 후자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賀照田, 2020: 111).

저자가 볼 때 12대를 전후하여 군중노선에 관한 대대적인 축소와 왜곡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중공 지도부에 의해 의식적·체계적으로 조직된 결과다. 무엇보다 8대에서 군중노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했던 이가 12대 지도부의 중심인물인 덩샤오핑이었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 변화의 심상치 않은 무게를 감지한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12대 지도부는 항전과 내전을 겪으며 군중노선을 몸소 체득한 세대로서, 8대 당시 군중노선이 당의 중요 사상으로 각인되는 과정에 깊이 간여했다. 그런 그들이 12대에 와서는 군중노선에 의도적으로 다른 해석체계를 수립하여 8대의 사상 및 조직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을 주도했던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12대에서 수립된 군중노선의 왜곡된 해석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시기 초 군중노선의 축소 재해석이라는 사건이 중국의 사회주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강조한다(賀照田, 2020: 111-114).

그렇다면, 혁명원로들이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을 주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 원인은 문혁이었다. 당시의 지도부가 군중노선을 몸소 체득한 세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혁 시기 과도한 군중운동이 초래한 비극을 경험한 터라 군중노선에 대한 경계심도 컸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문혁이 군중노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군중노선을 조직적으로 축소 재구성한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근거를 그는 1960년대 덩샤오핑이 대약진 시기의 군중운동의 오류를 교정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한 데서 찾는다. 이런 이치라면 신시기 초에 덩샤오핑은 군중노선을 축소 재구성하기보다 문혁 시기의 오류를 교정하는 방향을 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저자는 신시기 초 덩을 포함한 지도부가 군중노선에 대한 변화된 사고를 갖게 된 데는 무언가 다른 사상적 맥락이 있다고 추론한다(賀照田, 2020: 150-154).

그 맥락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자는 신시기 초 문혁을 반성하는 문건들에 ‘중국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소생산자적 특성’이라는 관념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데 주목한다. 소생산자란 근대적 상품경제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의 소농이

나 수공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과 의식 양면에서 낙후한 봉건성과 전근대성을 표상한다. 저자가 볼 때 ‘소생산자적 특성’이라는 관념이 등장한 것은 문혁 시기이지만, 그것이 형성된 맥락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국혁명 본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처럼 대지주와 농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봉건사회가 늦게까지 지속된 탓에 중국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원론적 의미에서의 계급투쟁이 발생할 구조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혁명 당시 중국인의 절대다수는 자영농과 가내수공업자를 비롯한 소생산자였다. 노동자 계급은 수적으로 극히 적었고 지리적으로도 혁명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관건은 어떻게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중국사회를 혁명의 유기적 역량이 창출되는 상황으로 전환하느냐였다(허자오텐, 2018: 154-155).

저자의 관점에서 추론해 보면, ‘중국사회에 편재하는 소생산자적 특성’이라는 관념에는 소생산자성에 대한 양가적 인식이 담겨 있다. 즉, 중국사회에 만연한 소생산자성에 대한 우려는 기실 소생산자성에 잠재된 혁명성에 대한 낙관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문혁 시기 급진주의자들이 소생산자성 개념을 인민군중의 혁명 각오와 혁명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적극 활용한 데서도 드러난 바 있다. 문혁 후기 인민군중의 혁명성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부작용을 낳게 되자, 중국에는 마오조차도 “군중의 자기 해방”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를 자제하고 무산계급 전정(專政)이나 선진분자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賀照田, 2020: 120-121).

문제는 신시기에 들어 소생산자성에 부착된 양가성 인식이 사라지고 소생산자성을 오로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신시기 초 당권자들이 한편으로는 “중국사회가 소생산자로 가득하다(中國社會被小生產者充斥)”는 문혁 시기 급진주의적 관념으로 중국사회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문혁 시기 군중의 혁명 각오와 개조 가능성에 부여했던 낙관주의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이중성에 주목했다. 즉, 신시기 당내 주류적 사고는 인민군중을 물질적·의식적으로 낙후한 봉건적 존재로 간주하는 문혁 시기의 전제는 유지하면서도, 그 낙후성을 스스로 개조할 수 있는 인민군중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회수했던 것이다. “군중이 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교육하게 하자”거나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자”거나 “군중은 스스로를 해방한다”와 같은 문혁 시기의 슬로건

은 “민주를 보장하되 집중도 보장하며, 자유를 보장하되 규율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예강화」의 틀에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賀照田, 2020: 122-123).

그렇다면 신시기에 들어 소생산자성에 대한 양가성 인식이 부정적 인식으로 대체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 중대한 단초를 저자는 당내 엘리트이자 『리스엔지우(歷史研究)』⁶의 주편 리주(黎澍: 1912~1988)의 문건에서 발견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이 진행된 결정적인 시기는 「11기 3중전회 공보」(이하 「공보」)가 정초된 1978년 12월부터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자」(이하 「4항 기본원칙」)가 발표되는 1979년 3월까지의 3개월이며, 이후 「예강화」가 완성되는 1979년 9월에 그 기본틀이 다져졌다. 그런데 「공보」에서 「4항 기본원칙」으로 가는 시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내부 문건이 있었으니, 바로 리주의 「봉건 잔여의 영향을 소멸하는 것이 중국 현대화의 중요 조건이다(消滅封建殘餘影向是中國現代化的重要條件)」(1978. 12.)라는 글이었다.

문혁 10년을 ‘봉건주의의 복벽’으로 규정한 리주의 문건은 문혁 발생의 근본 원인을 중국의 ‘장기 봉건’에서 찾았다. 그로부터 그는 신시기의 방향이 5.4 반봉건 사상혁명을 완성하는 ‘현대화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리주의 이러한 기초가 후차오무(胡喬木)의 책임 집필을 거친 덩샤오핑의 강화 「4항 기본원칙」과 「예강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 착목한다. 사인방을 “봉건 파시스트”로 규정하거나 “사인방의 파괴”가 일어난 원인을 “구사회의 장기 역사가 남긴 영향”으로 돌리는 두 문건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리주의 글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賀照田, 2020: 128-130). 말하자면, 중국 사회-역사의 ‘장기 봉건’에서 문혁의 근본 원인을 찾는 당내 엘리트 리주의 논리가 후차오무를 비롯한 중공 이데올로그(ideologue)에게 수용됨으로써, 이제까지의 중국혁명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과 단절하는 ‘현대화’를 내세우는 신시기 당의 정책기초가 결정된 것이다.

저자가 볼 때 문혁의 발생 원인을 중국 역사-사회의 ‘장기 봉건’에서 찾는 리주의 사고는 중국혁명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사인

⁶ 1954년에 창간된 쌍월간 「역사연구(歷史研究)」는 신중국 최초의 종합역사간행물로서 귀모루어(郭沫若)가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https://www.touqikan.com/lcyj/>.

방(四人幫)의 출현을 린바오(林彪) 같은 일부 좌경 세력의 오류가 아닌 중국사회의 ‘장기 봉건’성에서 찾는다면, 부정되는 대상은 문혁뿐 아니라 중국혁명 전반이 된다. 그뿐 아니다. 문혁의 발생 원인을 중국혁명의 태생적 전근대성으로 돌리는 리주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중국혁명의 주체 역량인 ‘인민군중’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신시기 초 당내 엘리트와 지도부, 그리고 지식인의 공모가 형성되는 기초인 것이다.⁷ 이제까지의 중국혁명을 봉건적·전근대적 단계로 규정하고 신시기를 그것과 단절된 현대화 단계로 확분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필연적으로 앞 단계 혁명의 주체 역량이었던 인민군중의 의미와 지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을 추동한 사상적 맥락이다.

IV. 인민이 소외된 인민공화국?

1. 위험한 인민의 자발성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의 이행이 8대로의 복고를 표방하면서 그와 단절하는 역설적 과정이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신시기에 감춰진 주름의 깊이를 암시한다.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은 복고와 단절이 중첩된 모순적 이행이 은닉된 신시기 사상공정의 중심축으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본질은 중국혁명에서 인민의 지위와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이었다.

신시기 초 당 지도부와 엘리트가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에 공모했다는 저자의 제시적 주장은 다른 말로 하면 혁명시대의 주체였던 ‘인민군중’의 의미와 지위를 조정하는 과정에 지식인이 가담했다는 말이 된다. 행간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혁명에서 ‘인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집단이 형성된

⁷ 지식인의 공모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저자는 지식인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원로간부들이 제아무리 문혁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중노선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한들 자신들의 기억 속에 이상적으로 각인된 군중노선을 그렇게 단시간에 축소하고 주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賀照田, 2020: 124).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국민당보다 한참 열세였던 공산당이 건국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계급에 기초하되 계급을 초월하는 인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의 창출에서 찾았다(허자오펜, 2018: 165). “머리와 꼬리는 작고 몸통이 큰” “소자산계급의 망망대해”라는 량수밍(梁漱溟)과 마오쩌둥의 표현이 보여 주듯(賀照田, 2020: 73-74), 소농이 인구 대부분을 점했던 중국은 계급투쟁이 일어날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마오와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객관 조건의 결핍을 혁명의 동력으로 전화시켰다. 계급의식을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정치적 토양 위에 사람의 주체적 실천과 의지가 투여되어 만들어지는 유기적 산물로 재구성함으로써, 계급에 기초하되 계급을 초월하는 인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집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민이란 물질적 기반과 의식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라는 대의에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을 결합시킴으로써 혁명의 일부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모여든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대오였다(허자오펜, 2018: 155).

말하자면, 인민은 계급의 상대화를 통해 의식적으로 전유된 집단정체성이다. 저자가 누차 강조하듯, 계급투쟁의 결핍이라는 현실로부터 새로운 계급의식을 조직하는 창조성이야말로 마오와 공산당의 실천적 창조성의 관건이다. 그래서 마오의 혁명에 회의적이었던 량수밍조차 중국혁명에 대해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계급대립이 결여된 중국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계급충돌의 조건이 불충분한 중국 사회의 정치적 실천을 조직”했다며 마오에게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賀照田, 2020: 74). 중국혁명의 정수는 계급투쟁의 결핍이라는 객관 조건을 혁명의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본래의 계급성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인민’에 동일시”(허자오펜, 2018: 165)하는 거대한 집단정체성을 만들어 낸 데 있었다. 그것을 이론적·사상적으로 조직한 것이 바로 군중노선이었던 것이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이 혁명 조건의 결핍이라는 토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민이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존재임을 시사한다. 모순적 산물로서 인민은 중국 사회의 소생산자적 특성에 대한 양가성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소생산자성은 중국혁명에 태생적 전근대성이라는 한계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는 혁명을 추동하는 잠재적 동력이기도 하다. 즉, 소생산자성을 봉건성과 전근대성

으로만 규정하면 혁명의 저해 요소가 되겠지만, 자기개조를 통해 계급적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주입된다면 소생산자성은 오히려 운동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론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바로 ‘자발성’이다. 주관적 의지와 실천에 기반한 역동적 개념으로서 인민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혁명적 자발성에 대한 낙관과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때 자발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계급투쟁 조건의 결핍이라는 객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표리를 이룬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러한 모순론으로부터 우리는 신시기 초 인민이 직면한 실존적 위기를 응시하는 저자의 시선에 좀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혁명을 ‘장기 봉건’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문혁의 발생을 중국 사회에 태생적으로 내재하는 소생산자성의 탓으로 돌리는 사고가 당내의 주류가 되면서, 신시기 초 소생산자성에 대한 양가성 인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소생산자성을 극복 대상으로 보면서도 그에 잠재된 혁명성을 북돋으려 했던 혁명시기와 달리, 신시기에는 소생산자의 혁명성을 평균주의에 기반한 전근대적 농업사회주의 열정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고무하는 것을 위험한 행위로 인식했다(賀照田, 2020: 126-127). 소생산자성에 잠재된 혁명성이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인민의 혁명적 자발성의 사상 공간은 극도로 좁아진다.

자발성에 대한 부정은 인민의 실존적 기반을 건드리는 것이다. 인민이 소생산자성의 양가성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모순적 개념이라고 할 때, 객관 조건의 결핍을 운동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자발성이야말로 인민을 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사상적 근거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중국혁명을 전근대적 산물로 치부하고 그것과 단절을 선언하는 현대화 논리에서 인민에 대한 이 같은 양가성의 사고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봉건과 현대를 단절적으로 가르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전근대적’ 혁명의 주도 역량인 인민군중의 자발성이란 중국혁명의 현대화에 장애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민이 스스로를 해방한다’는 혁명시대의 낙관주의 역시 위험한 사고가 된다. 현대화 논리에서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과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당의 영도 아래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민의 자기개조 가능성과 잠재된 창조성을 강조하는 군중노선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목표로 내건 신시기의 정치노선과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시선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서 있는 근간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그가 볼 때 신시기 중국이 채택한 현대화 노선은 혁명 시기에 구축된 인민의 주체성을 부정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인민이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계급성의 선천적 결핍으로부터 혁명성을 이끌어 내는 모순적 존재로서, 그 역설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자발성이었다. 자발성은 인민을 주체로서 존립케 하는 근거인바, 자발성이 소거된 인민이란 그 자체로 이율배반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신시기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의 존립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기초 위에서 출발한 것이 된다. 인민에 대한 회의와 의심 위에 신시기의 사상적 방향이 수립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포스트 혁명’의 아포리아이다.

2. 계몽의 소환과 ‘인민’ 정체성의 균열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이 문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설명 방식에 대해 저자는 시종 거리를 둔다. 그가 볼 때, 이 문제는 혁명의 주체성을 둘러싸고 20세기 중국현대사 전반에 장기간 잠복해 온 모종의 장력이 문혁이라는 특정한 계기를 만나 수면에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 바로 지식인과 노(勞)·농(農)·병(兵)의 긴장관계라는 중국혁명의 오랜 의제다.

중국혁명이 계급투쟁의 미성숙이라는 조건에서 태어났음을 상기할 때, 계급을 상대화하는 인민의 탄생이 중국혁명의 관건임은 전술한 바다. 공산당이 객관적인 악조건에서도 국민당에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봉건적 소생산자들을 노·농·병으로 대표되는 ‘인민’으로 소환해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지점이 있으니, 바로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士)’를 우위에 두는 사·농·공·상의 사민(四民) 사회였다는 사실이다. 중공의 핵심 구성원이 ‘독서인(讀書人)’ 즉 전통적인 ‘사’의 기반에서 태어난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사실은 수천 년간 ‘사’가 정치·문화·윤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 온 중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허자오펜·이남주, 2019: 273-275). 그런 점에서, 이론적으로 혁명의 이상적 주체인 노·농·병과 실

질적으로 중공의 핵심이었던 지식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중국혁명의 주체성에 관한 피할 수 없는 예민한 문제였다.

어떤 면에서 인민이라는 주체 개념에는 지식인과 노·농·병 간의 장력이 애초부터 은닉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혁명적 계급담론에서 지식인과 엘리트는 전통사회에서의 문화적·정치적·도덕적 우위를 누릴 수 없었다. 이들이 진정으로 혁명 주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위정당의 요구에 따라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을 스승으로 삼아 자신을 개조해야 했다(허자오펜·이남주, 2019: 274). 선천적으로 결핍된 계급성을 배양하기 위해 신체·정서·의식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농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학습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식인 엘리트의 자기개조 작업은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잠재된 혁명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휘하도록 돕는 계몽자의 역할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계몽과 혁명의 변증법’이다. 저자가 볼 때 중국혁명 담론에서 계몽은 결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다. 계몽은 지식인과 군중의 상호 침투 및 상호 학습 과정에서 쌍방 모두를 변화시키는 선순환적 실천이며, 그것이 쌍방 모두의 잠재된 혁명성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계몽과 혁명은 변증법적 관계다. 계몽과 혁명의 변증법을 통해 지식인과 노·농·병은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위계를 탈피하여 인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자신을 기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민은 지식인과 노·농·병 간의 계몽이라는 상호 소환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계급적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난 ‘신인(新人)’ 공동체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계몽이 5·4의 계몽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저자는 5·4와 중국혁명의 계몽을 부정적 계승의 관계로 규정한다. 그가 볼 때 중국혁명이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초는 1920년대의 사상적 주류였던 5·4 계몽주의의 사회감각을 돌파한 것이었다. 군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5·4의 이분법적 계몽 감각에서 벗어나 노동자 농민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공의 엘리트와 지식인들은 사회 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사회감각과 탄력적인 정치감각을 습득할 수 있었다(허자오펜, 2018: 156). 그런 맥락에서, 신시기에 들어 5·4의 계몽이 혁명시대의 계몽을 다시 대체하게 된 것은 저자가 볼 때 매우 걱정스런 현상이다. 리저허우(李澤厚)로 대표되는 1980

년대 계몽사조의 출현은 5·4 계몽의 반격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혁명-포스트혁명』에 수록된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글 「계몽과 혁명의 이중변주」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1980년대 계몽주의의 경전적 글인 리저허우의 「계몽과 구국의 이중변주」를 비판적으로 재독(再讀)하면서, 저자는 5·4에서 중국혁명, 신시기로 이어지는 현대사에서 계몽의 관념이 극복되고 역전되는 맥락 속에 숨겨진 사상적 함의로 파고든다. 중국현대사에서 항전과 내전의 긴박성으로 인해 ‘계몽’의 과제가 ‘구국(救亡)’에 의해 주변화되었음을 역설한 리저허우의 「계몽과 구국의 이중변주」는 1980년대 중국 지식계의 주체성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리저허우의 이 글을 통해 ‘계몽’은 정치적 억압에 억눌린 인성과 자아를 회복하는 과제이자 일찍이 5·4신문화운동에서 주창되었지만 중국현대사의 굴곡 속에 좌절당한 ‘미완의 과제’로서, 신시기 지식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런데 저자는 리저허우의 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리저허우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계몽의 주변화가 아니라 중국혁명의 반(反)현대성이라는 것이다. 즉, 리저허우의 진짜 의도는 5·4시기 현대적 운동으로 시작했던 중국혁명이 중국사회에 뺏속 깊이 내재한 봉건성으로 인해 전근대적 운동으로 퇴행하고 말았으며, 따라서 신시기의 당면한 과제는 5·4가 제기했던 계몽의 과제를 완수하여 중국혁명이 애초에 담지했던 현대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밝히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허자오펜, 2018: 166-177).

저자가 볼 때, 중국혁명이 애초에는 현대적 운동이었는데 후에 봉건적으로 퇴행했다는 리저허우의 주장에는 혁명의 주체성에 관한 모종의 의도된 기획이 담겨 있다. 즉, 5·4시기 지식인의 손에 있던 혁명의 주도권이 항전과 내전을 거치며 노동자·농민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중국혁명이 전근대로 퇴행했다는 논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의 현대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노·농·병의 수중에 들어간 혁명의 주도성을 지식인이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저허우의 계몽관은 의식했든 아니든 앞서 언급했던 리주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관점과 부합한다. 말하자면, 건국한 지 수십 년이 되도록 중국사회가 전근대 단계에 정체된 이유는 근대의 세례를 받지 못한 봉건적 소생산자가 혁명의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라는 당내 주류적 현실 인식과 유사한 전제위에서, 신시기 초 5·4계몽주의가 소환되었던 것이다(허자오펜, 2018: 176-178).

그렇다면, 리저허우로 대표되는 80년대 계몽사조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몽과 혁명이라는 상호 소환 시스템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지식인과 군중을 다시 분리함으로써 인민 공동체에 균열을 낸 데 있다. 혁명적 계몽담론의 핵심은 계층이나 계급적 기반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잠재된 혁명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 계층/계급을 넘나드는 상호 침투와 상호 추동을 통해 각자의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식인과 엘리트는 이론이나 이념에 갇힌 추상적 사회 이해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문화·정서 모든 차원에서 각 계층/계급의 생생한 사회경험과 감정경험, 가치감각과 소통해야 했으며,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 특히 항전이라는 특정한 실천을 거치면서 중국혁명은 계급투쟁을 초월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감-의식-심리-가치감각을 생성”하는 단계에 진입했던 것이다(허자오펜, 2018: 154-162).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단정체성이 바로 인민이다. 저자에 따르면, 인민은 계급투쟁을 넘어 정서적·심리적·의식적 차원에서 강렬한 동질감과 연대감 그리고 시대감각을 공유하는 집단정체성이자 서로 다른 처지와 조건, 의식 수준에서 각자의 혁명성을 최대치로 발휘시키는 통일전선이다. 반면, 군중을 스스로 개조 불가능한 낙후한 소생산자로 전제하는 1980년대의 계몽사조는 지식인과 군중을 계몽자와 피계몽자로 분리함으로써 계층 간의 유기적 결합을 가능케 했던 상호 소환 시스템을 파괴한다. 그런 점에서, 신시기 초 5.4계몽의 소환은 중국혁명의 실천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심리-의식-가치감각의 공동체로서의 인민 정체성을 심각하게 균열하는 사상적 사건인 것이다.

1980년대 계몽사조가 지식인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 역시 인민 정체성의 와해라는 맥락과 무관치 않다. 저자에 따르면, 인민이라는 정서-심리-의식-가치감각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계층을 뛰어넘는 상호 소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지식인들은 당면한 현실 문제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 구조화하는 정치적·실천적 감각을 견지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회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생기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게 되었다(허자오펜, 2018: 169-175). 그 결정적 원인을 저자는 ‘현대성’에 대한 지식인의 잘못된 감각에서 찾는다. 자신을 ‘현대’의 대리인으로, 대다수의 중국인을 ‘봉건’의 산물로 보는 5.4계몽의 이분법적 감각은 지식인들을 사회에 대한 모호한 비판의식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중국사

회 전반에 ‘현대’가 침투하는 1990년대에 이르면 비판하려는 대상과 자신이 공명 관계가 됨으로써 지식인의 사회 개입 여지를 스스로 현저하게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賀照田, 2020: 262-263). 문학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에 대한 환호 속에 패권을 잡은 중국의 모더니즘 사조는 “미적 형식을 통해 기성의 사회관계 속에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발견하지 못한 채,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허자오펜, 2018: 204-211). 외부의 지배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내면의 욕망에 천착함으로써 문학예술이 사회에 개입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모더니즘을 향한 저자의 통렬한 비판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비판적 역량을 상실한 지식인의 현주소가 1980년대 계몽사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피력한다.

1980년대 계몽주의가 낳은 가장 심각한 여파는 중국사회 전반에 퍼진 허무주의였다. ‘판샤오토론(潘曉討論)’⁸이 제기했던 허무주의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진지하게 받아 안지 못했다면서, 저자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정작 “의미의 추구를 통해 위로와 안식을 주는 제도 공간의 파괴”라는 상황에 내던져져 좌절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의 갈구를 외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심각한 인간 소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허자오펜, 2018: 107-108). 계몽주의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 체제나 권력의 억압에 집중된 탓에, 신시기 초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한 불안과 초조의 구조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사회에 미만(彌滿)했던 불안과 허무의 근원을 저자는 ‘의미감의 상실’이라 명명했다. 수많은 ‘판샤오’들을 집어삼킨 허무주의는 의미의 세계를 향해 불타올랐던 혁명시대의 열정이 신시기 초 돌연 갈 곳을 잃으면서 생겨난 현상으로서, 절망적 허무주의와 뜨거운 이상주의가 뒤엎힌 기이한 정신상태의 현현이었다(허자오펜, 2018: 101-112).

이러한 비판에는 필경 혁명을 기억하는 저자 자신의 감각이 개입되어 있다.

⁸ 1980년 5월 중국의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잡지 『중국청년』에 ‘潘曉’라는 필명의 독자 편지 형식으로 “인생의 길은 왜 갈수록 좁은가”라는 글이 실렸다. 그 시대의 청년이 느끼는 위기감을 강렬하게 반영한 이 글을 둘러싸고 『중국청년』, 그리고 양대 신문인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와 『공인일보(工人日報)』가 참여하여 약 반년간 토론이 지속되었다. ‘潘曉’라는 필명은 『중국청년』의 편집자가 두 명의 독자 판웨이(潘祎)와 황샤오취(黃曉菊)의 이름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그가 기억하고 감지하는 혁명의 본질은 결코 소유구조를 바꾸는 계급투쟁에 있지 않았다. 신시기 초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어찌면 당시의 수많은 판샤오 중 하나였을 저자의 신체에 각인된 중국혁명의 핵심은 역사와 세계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과 연대감 속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였다. 인민을 “자기 밖의 중국과 세계에 대해 더 자연스럽고 절실하게 연대감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든 특별한 집단으로 설명한 데서 보이듯(허자오펜, 2018: 165), 그에게 ‘인민’이란 자신보다 더 큰 세계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숭고한 이상주의를 부단히 쟁취해 가는 그릇이었다. 그런데 신시기의 계몽사조는 그러한 열정을 봉건적 소생산자의 위험한 충동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이상주의적 열정으로 흘러넘치던 인민이라는 그릇이 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속물적 개인이라는 낯선 정체성 앞에 직면한 청년들의 무참한 정신적 붕괴를, 계몽주의는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인간의 해방을 선언했던 계몽사조는 자기보다 더 큰 세계에서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정신적 기초를 균열시킴으로써 인간의 소외를 더 가속화한 것이다.

3. 민주와 개혁의 패러독스

신시기 균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이 중국혁명이라는 독특한 실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인민 정체성을 와해시켰다는 분석으로부터, 저자가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기층 민주주의의 길이 가로막힌 지금의 중국의 현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혁명시기 사회의 주체 역량이었던 인민이 정치개입의 통로를 상실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궁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균중노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저자는 신시기 초 균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이 이후 중국사회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다음 5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균중으로부터 유리된 관료주의의 기반을 낳았다는 것이다. 7대(1945)보다 8대에서 균중노선을 더 강조했던 이유는 정권 수립 후 균중으로부터 유리될 관료주의의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2대는 균중노선에 대한 참조 없이도 당-국가 영도자의 올바른 사상노선을 통해 주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언함으로써 8대가 경계했던 엘리트 주

관주의를 배양했다. 둘째는 ‘민주집중제’에 대한 해석의 변화다. 8대를 전후하여 집필된 ‘보고’가 민주집중제를 군중노선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풀이했다면, 12대에 제출된 ‘당장’은 민주를 군중노선의 견인이 아닌 지도자의 올바른 사상노선의 확립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재규정하여 사실상 ‘민주’보다 ‘집중’을 더 강조했다. 셋째는 제도물신주의이다. 마오시대 군중운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반작용이 제도개혁에 대한 숭배로 치달음으로써 제도 건설과 군중노선의 균형 위에서 민주의 가능성을 찾는 길을 가로막았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 네 번째이다. 저자는 “인민군중이 반드시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는 8대의 핵심테제가 12대에 실종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간인 ‘인민공화’의 사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군중노선의 시각으로 혁명과 사회주의 경험을 종합하고 성찰하는 작업이 신시기에 결락됨으로써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군중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 기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賀照田, 2020: 141-150).

요약하면, 신시기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이 중국 사회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중국혁명의 본질을 관료-엘리트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민군중이 정치에 참여할 통로를 봉쇄했다는 것, 그리하여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아래로부터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혁명시대 인민군중의 집단적 에너지를 위협한 것으로 부정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새 시대의 방향에 맞게 재조직하기보다 오히려 대다수 중국인을 “물질적 이익에 매몰된 소생산자”(賀照田, 2020: 285)라는 전제에 가두어 신시기의 정치 공간으로부터 배제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바 오늘날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좌절된 근본 원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가 민주의 좌절과 개혁 드라이브를 긴밀한 연관 속에 놓고 톈안먼(天安門)민주화운동을 그 숨은 변곡점으로 짚고 있는 점이다. 그는 1989년의 톈안먼운동이 ‘개혁’에 대한 지식인들의 감각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운동을 계기로 개혁을 독재정치를 무너뜨리는 선결조건으로 인식하는 지식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또 그로부터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까지 2년 남짓의 억압적·침체적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은 개혁이라는 새 국가노선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자유주의 사조가 중국 지식계에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또한 이것으로, 반독재 담론과 (국가 주도 개혁을 통한) 안정발전 담론이 공존하는 기이한 상황이 여기서 자라났다(허자오펜, 2018: 221-222).

텐안먼운동과 남순강화, 그리고 개혁이라는, 언뜻 잘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 사이의 숨은 연관성으로부터 저자는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인의 내면에 발생한 모순의 구조를 탐사한다. 그것을 그는 ‘이상주의의 상실’이라 불렀다. 혁명시대 집체적 유산인 이상주의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조직할 사상적 방향이 부재한 가운데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열정은 오직 ‘거대역사에 참여한다’는 형식으로만 충족될 수 있었다. 그것이 결국 개혁이라는 국가 노선을 대거 지지하는 방식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텐안먼민주화운동은 그러한 형해화된 이상주의가 최후의 일격을 당한 사건이었다. 개혁에 대한 지지로 분출되었던 이상주의의 집단적 열정이 개혁의 상징인 덩샤오핑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되는 아이러니 속에 1980년대의 이상주의는 남아 있던 형식마저도 와해되었으며(허자오펜, 2018: 126), 청년들은 개혁시대의 설계에 대한 저항의 동력을 상실한 채 경제발전이 곧 개혁이라는 국가의 방향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만 것이다(허자오펜, 2018: 320-321).

이러한 해석은 대중의 정치참여가 가로막힌 오늘의 중국 현실을 보는 저자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 중국에 민주주의가 결핍된 원인을 국가나 공산당의 억압적 정치제도에서 찾는 통상적 관점과 달리, 저자는 대중의 심리와 무의식의 층위에 더 주목한다. 중국은 왜 인민군중의 집단적 힘으로 혁명을 성공시켰던 역사 경험을 자신만의 민주주의를 배양하는 토양으로 삼지 못했는가. 이 문제를 추궁하는 가운데 그가 찾은 열쇠말이 바로 ‘사상 무의식’이었다. 그것은 곧,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민이 자신의 주체성을 자율적 혹은 타율적으로 당-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자생적인 대중정치의 방식을 창조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모종의 기제다. 그 기제를 작동시킨 주범을 저자는 (당 안에서) 군중노선의 축소 재구성과 (당 바깥에서) 계몽사조의 형성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당 지도부와 엘리트, 그리고 지식인의 공모 속에 신시기 초의 ‘사상 무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긴다. ‘사상 무의식’

에 저항하기 위해 대중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이다. 당권자, 엘리트, 지식인에 대한 예리하고 치밀한 분석에 비해, 대중에 대한 저자의 비판의 날은 상대적으로 무디다. 물론 ‘판샤오’로 상징되는 청년들의 방황과 좌절을 방기한 책임을 국가와 지식인에게 묻는 그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접근은 저자의 의도와 달리 대중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의제화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피해자로 전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국가의 개혁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물질주의 욕망을 정형화했다는 아래 문장에서 보다 증폭된다.

80년대 역사가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대관념에서 대다수 사람들을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소생산자로 간주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이 가설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사회경제 재구축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점점 더 관념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단정된 상태로 몰아갔다. 또한, 관련 인식과 관념의 구축 과정에서도 점점 더 경제의 결정성을 강조하고, 특히 사람들은 실익을 가장 중시한다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과 심리를 정형화해 갔다(허자오롄, 2018: 120).

국가의 개혁 논리가 사람들을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생산자로 몰아갔다는 인용문의 설명대로라면, 저자가 앞서 강조했던 인민의 잠재된 자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십 년의 혁명 실천 과정에서 조직화되고 단련되었던 중국 인민들이 1980년대 이후 순식간에 물질주의를 쫓게 된 현상을 과연 전적으로 국가의 개혁 이데올로기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헨안먼 운동이 무참하게 진압된 후 대중들이 개혁 노선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개혁개방 이래 중국사회에 형성된 ‘사상 무의식’이 전적으로 국가와 지식인의 공모에 의한 것이고 대중들은 그에 속수무책인 피해자일 뿐이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다시 대중의 자발성과 나아가 기층의 자생적 민주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을까.⁹

⁹ ‘인민’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 대해 저자는 대만 작가 천잉진(陳映真)을 통해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많은 중국 학자들처럼) 천잉진은 중국 ‘인민’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는 개혁 이데올로기에 투항하여 민주의 가능성을 그 대가로 지불했다는 저자의 비판은 오늘날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대중의 힘이 턱없이 허약한 중국 사회의 폐부를 아프게 찌른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민주의 자원을 찾아 혁명시대의 유산인 군중노선을 돌아보는 작업이 언뜻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문혁의 악몽으로 인해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행동에 대한 타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사회에서, 이런 접근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나 군중노선에 대한 저자의 강조는 혁명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저자를 신좌파와 구별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¹⁰ 중국의 자생적 민주의 가능성을 찾는 원점으로서 군중노선에 주목했지만, 저자는 결코 마오시대의 사회주의를 미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간취하는 마오시대 군중노선의 정수는 정치적·제도적 조건, 그리고 담론과 가치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군중의 다양한 성격과 변화무쌍한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능력이었다(賀照田, 2020: 160). 그에게 군중이란 결코 고정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심지어 저자는 8대의 군중노선에 대해서도 7대의 상황과 달라진 군중의 성격과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항전 시기 열악한 조건에서 고투하던 시절의 군중과 건국 후 상대적으로 안락해진 시기의 군중은 그 성격과 구조에서 크게 달랐을 텐데, 8대의 군중노선은 그런 차이를 면밀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賀照田, 2020: 158).¹¹ 군중노선에 대한 저자의 강조는 탈구(脫臼)된 당-인민-지식인의 상호 소환 시스템을 회복하여 40

이 ‘인민’을 대표하여 중국 국가를 비판한다고 생각한 탓에, 정작 인민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이를 수 없었다. 이후 계엄체제를 살아가는 대만 민중에 대한 통찰로부터 천잉전은 대륙 인민의 모순적인 이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천잉전의 입을 빌려, 저자는 인민이 항시 국가와 대결한다는 사고는 실상에서 벗어난 피상적인 관념이며, 현실에서 양자는 국제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층위에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고 말했다(賀照田, 2020: 191-193).

¹⁰ 신좌파에 대해 저자는 중국 사회의 문제들을 모두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역사감각과 현실감각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허자오펜, 2018: 248-249).

¹¹ 여기서 잠시, 7대와 8대 사이 3년에 걸친 ‘항미원조전쟁’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총동원체제로서 항미원조전쟁은 신생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정치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정전 3년 후에 열린 8대에서 군중노선이 확립되는 데 항미원조전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추후 심화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년 전 혹은 70년 전과 비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재의 중국 대중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오늘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절실하게 맞닿아 있다.

V. 잃어버린 세계와의 관계를 찾아

장구한 혁명의 장정에서 이상주의의 열정으로 응결되었던 인민의 집단적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운동의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지금 중국이 처한 곤경이자 위기의 본질이라는 진단으로부터, 저자는 이상주의 재건을 위한 길찾기에 나선다. 저자가 택한 길은 타자를 다시 발견하고 그들과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마오시대 이상주의의 핵심은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보다 더 큰 의미의 세계에 자신이 귀속되어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가 ‘인민’을 물질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유물론적 존재가 아닌 정신적·심리적·정서적 공동체로 보았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인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 감각 속에 형성되는 정체성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시기 이래 ‘인민’ 정체성의 와해는 타자/세계와의 연결 고리의 상실을 의미한다. 저자가 볼 때, 근래 중국이 국가의 사상적 근간인 ‘인민공화’보다 ‘중화’나 ‘국가’를 더 강조하고 또 유학열(儒學熱)을 조장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부추기는 근심스런 현상(賀照田, 2020: 149)은 타자/세계와의 관계를 자기 삶의 감각으로 내재화하는 이상주의의 유산을 상실한 결과다. 타자와 자기를 연결시키는 감각이 사라진 빈자리를 ‘민족’이나 ‘국가’ 같은 즉자적 대상이 대신함으로써, 중국의 세계감각은 자기완결적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¹²

세계감각에 결핍된 타자성은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도리어 “세계

¹²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문명’ 정체성 논의도 유사한 우려를 자아낸다. 옌이룽(鄢一龍) 외(2015: 45-72)이 제시한 중화문명-중국공산당-사회주의 문명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문명 담론은 자아의 무한 확장에 기반한 동질성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로 나타났다. 저자는 최근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애국주의 경향의 원인을 타자성이 결핍된 세계감각에서 찾는다. ‘윈윈(共榮)’, ‘조화(和諧)’, ‘평화발전(和平發展)’ 등 중국이 세계에 보내는 ‘선의’의 제스처가 번번이 부정적 반응으로 돌아오는 데 대한 반감이 다시 중국인의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에 대해, 그는 중국인이 ‘선의’라고 믿는 것이 왜 세계에 전달되지 않는지 되묻는다. 그것은 바로 “타자를 타자로 삼지 않는” 중국인의 협애한 자아 인식 때문이다(허자오펜, 2018: 269-280). 부분적으로 그것은 ‘자기로부터 미루어 타인을 생각하는(以己推人)’ 중국의 전통적인 동심원적 공동체 관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중국인에게는 원천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절대화하고 타자를 객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비교가능한 타자를 존재 그대로 인식하고 타자를 매개로 자기를 새로 인식하는 과정, 즉 “자기 내부에서 자기를 상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인은 비로소 정확한 세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賀照田, 2012: 263).

타자를 통해 자신을 상대화함으로써 잃어버린 세계감각을 되찾는 것, 이것은 저자가 잃어버린 이상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의 기점이다. 그 첫 기항지는 대만 작가 천잉전(陳映真)이었다. 1960년대까지 대만 좌익 사회운동의 이념적 좌표였던 중국혁명의 맨얼굴이 1979년 양안관계 개선으로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자본주의 세계를 살았던 사회주의자 천잉전이 감당해야 했던 환멸의 궤적을 따라 밟으면서, 저자는 오늘의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자기의 절망을 바깥에서 들여다본다. 젊은 날의 이상을 쏟았던 중국혁명에 대한 환멸에 직면하여 “아름다운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賀照田, 2020: 200)는 실존적 붕괴를 딛고 문학 생애를 힘겹게 재건해 나간 천잉전의 1980년대 작품들은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이상주의가 무너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코 저자가 천잉전에게서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을 발견했다는 상투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천잉전을 통해 얻은 것은 1980년대의 중국 사회주의가 드러낸 절망적 얼굴이 마오시대 사회주의와 (설령 그 반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전승관계에 있다는 냉혹한 자기 인식이었다. “무산계급 독재와 당 관료독재 간의 모순, ‘사회주의 민주’의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 자본 축적이 빈약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발생하는 이론과 실천상의 엄청난 곤경”

(賀照田, 2020: 189) 등 1980년대 중국이 드러낸 문제들은 모두 마오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혁명과 포스트혁명은 단절이 아닌 전승관계라는 점, 따라서 오늘날 중국사회가 드러내는 문제의 연원과 해법은 혁명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며, 결코 혁명시대와의 단절이나 회귀나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국가권력과 민간의 왜소한 자생적 정치역량 간의 비대칭은 지금 중국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이자 저자가 고뇌하는 위기의 본질이다. 저자가 볼 때, 중국이 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는지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질문도, 유효한 해법도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혁명시대 사회의 주체역량이었던 인민대중이 어찌다 이토록 주변화되었는가이다. 『혁명-포스트혁명』은 이 질문의 답을 모색하는 저자의 사상적 고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가 밝혀낸 것은 혁명에서 포스트혁명으로 전환하는 시기 모종의 조직된 사상공정이 인민의 지위를 주변화하고 당과 엘리트 중심으로 국가의 이념과 방향을 재편했다는 사실이다. 관련된 방대한 문헌에 대한 저자의 정밀한 분석과 해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과도기 정도로 알고 있던 ‘개혁개방’이나 ‘신시기’가 얼마나 치밀한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통해 구축된 것인지를 일깨운다.

문제는 어떻게 주변화된 대중정치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이다. 이 책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분석의 중점이 당 문헌과 엘리트 담론에 치중된 탓에, 대중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저자의 질문을 조금 각도를 틀어 되묻자면, 왜 혁명시대를 이끈 주역이었던 인민군중이 포스트혁명으로의 전환기에 당과 엘리트가 구축한 사상공정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가. 물론 이런 의문은 1989년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문턱에서 멈춘다. 『혁명-포스트혁명』은 텐안먼민주화운동이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임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분석과 판단은 유보했다. ‘판샤오토론’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텐안먼 민주운동으로 끝내 좌절되는 1980년대의 내면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중국학자들에게서 좀처럼 찾기 힘든 저자의 가장 큰 미덕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타자/세계와의 관계를 중요한 축으로 상정한다는 사실이다. 자발적 대중운동의 부재라는

중국의 문제는 결코 외래 제도의 도입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 내부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타자/세계와의 관계로부터 부단히 자기를 상대화할 때 중국은 자신과 세계를 보는 정확한 현실감각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실에 직립한 아래로부의 대중운동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중국 학자 첸리쥘(錢理群, 2006)은 「우리 세대의 세계 상상」이라는 글에서 혁명시대 중국 인민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동방’, ‘반둥(Bandung)’, ‘항미원조’, ‘항미원월(抗美援朝)’ 등 다양한 기호들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계 감각을 영유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첸리쥘이 말하는 ‘세계’란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비록 냉전적 감각에 제한된 것이지만,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여하는 숭고한 의미의 세계였다. 그런 점에서 혁명시대의 ‘인민’은 허자오펜이 말한 것처럼 계급을 상대화한 존재이면서,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상대화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강국으로서 세계의 한복판에 선 오늘의 중국은 오히려 세계로부터 극심하게 고립되어 있다. 『혁명-포스트혁명』은 중국이 어떻게 세계와 다시 만날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묻는 책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답하는 듯하다, 중국의 인민이 다시 한 번 위대해질 때, 잃어버린 이상주의를 ‘지금-여기’에서 새롭게 재건할 때, 중국은 잃어버린 세계와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투고일: 2022년 2월 9일 | 심사일: 2022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30일

참고문헌

- 리리핑(李里峰) 저. 소동옥 역. 2018. “모호한 주체: 근대 중국의 ‘균중’ 담론.” 『개념과 소통』 제21호, 88-127.
- 백지운. 2003. “近代性 담론을 통한 梁啓超 啓蒙思想 재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치영. 2008.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기3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

- 구』 17권 4호, 61-88.
- _____. 2013.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재평가와 개혁』. 파주: 창비.
- 옌이룽(鄒一龍) 외 저. 성균중국연구소 역. 2015.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중국 청년학자들의 걱정 토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코헨, 폴 A. 저. 장의식 외 역. 1995. 『미국의 중국 근대사』. 고려원.
- _____. 이남희 역. 2013. 『학문의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 아산: 순천향대학교출판부.
- 허자오펜 저. 임우경 역. 2018.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파주: 창비.
- 허자오펜·이남주. 2019. “중국혁명, 역사가가 현재인가.” 『창작과비평』 185, 266-298.
- 賀照田. 2012. “讓‘民際’鮮花盛開—讀崔元植『東亞國際主義的理想與現實』.” 『臺灣社會研究季刊』 第89期, 259-264.
- _____. 2020. 『革命-後革命: 中國屈起的歷史·思想·文化省思』. 新竹: 國立交通大學出版社.
- 蔡翔·罗岗·倪文尖. 2009. “‘文学这30年’三人谈.” 今天(6월 4일) <https://www.today1978.com/today/?action-viewnews-itemid-15901-page-4>(검색일: 2021. 12. 13.).
- 錢理群. 2006. “我们这一代人的世界想像.” 书城 2006年 11月号. <http://old.cul-studies.com/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39&id=64>(검색일: 2021. 12. 13.).
- Pew Research Center.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October 6)
- Levenson, J. R. 1953. *Liang Chi-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Overcoming Post-revolution's 'Unconscious of Thought': A Dialogue with *Revolution/Post-Revolution: Reflection on the History, Thoughts and Culture of China's Rise* by Zhaotian He

Jiwoon Bai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view essay on Zhaotian He's book, *Revolution/Post-Revolution: Reflection on the History, Thoughts, and Culture of China's Rise*, published in Taiwan in 2020, seeks a deep dialogue with Chinese intellectuals regarding the crisis of contemporary China. He illuminates 'unconscious of thought' as the gist of current China's crisis, which occurred in the transition from the revolution to the post-revolution era. 'Unconscious of thought' refers to a conscious, mental, and emotional mechanism that blocks Chinese people from engaging in society by reorganizing the nation's ideological axis from people-centered to party-and-elite-centered. He analyzes this mechanism as two pillars, the minifying reconstruction of Mass Line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Enlightenment, and ultimately emphasizes that the Chinese people need to restore their lost idealism by reconnecting themselves with others and the world as a key to rebuilding popular politics from below.

Keywords | Zhaotian He, post-revolution, people, reform, Mass Line, idealism, New Enlightenment

